

문화예술교육 이슈리포트 2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 회복”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회적 가치의 탐색 -



문화예술교육 이슈리포트 2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 회복”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회적 가치의 탐색 -

서론 : 회복과 문화예술교육정책

임학순 /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통합”, “자연과의 공생”, “문화다양성”, “공감”, “공동체”, “디지털 윤리”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찰**”과 “**회복**”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성찰**”의 키워드는 인간, 경제, 물질 중심의 패러다임이 갖는 부정적 효과를 깊게 이해하고, 인간과 환경, 경제와 환경, 물질과 정신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여정을 의미한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성찰의 힘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은 코로나19의 위기와 영향에 대한 그 근원을 탐색하며 우리 사회에 성찰적 담론을 공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복**”의 키워드는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초토화된 경제, 사회, 문화 현장, 그리고 일상적 삶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가치관, 태도, 생활 행동 등 문화의 회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처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접근**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제를 공감하고, 생각과 행동을 바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찰”과 “회복”이 필요한 시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정책은 2005년부터 문화예술 영역에서 인간과 사회 영역으로 정책영역을 확장해 왔다. **삶 인식, 창의성, 자존감, 문화다양성 인식, 힐링, 사회적 관계, 공동체, 사회통합, 자연과의 공생 등 다양한 인간과 사회의 문제들이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범주에서 다루어졌다**.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의 심미적, 인문적,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앞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에 대한 성찰과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인력과 단체,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등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활용한 사회 전체의 회복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사회문제를 주로 대상 집단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고려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 그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제기한 “사회통합”, “자연과의 공생”, “문화 다양성”, “공감”, “공동체”, “디지털 윤리”** 등의 이슈를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의 주제로 설정하고, **주제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체계를 갖추**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연관된 문화예술교육의 주제는 크게 다음 3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 차원으로 사회적 관계 회복, 우울감 해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 감수성 등의 주제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사회 차원으로 공동체 회복, 사회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 문화 다양성, 디지털 격차** 등의 주제를 들 수 있다. **셋째는 세계 차원으로 지구촌 공동체로서,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함께 지켜야 할 윤리**와 관련된 주제를 들 수 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은 환경과 인간의 공생 이슈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1970년대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중요한 축으로 설정해 왔으나, 환경발전과 문화발전의 연계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서야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중요한 국제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관한 논의 또한 문화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ACE (Arts Council of England)는 미래 문화정책 전략을 제시하면서 “환경 책임성”(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책적,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사회문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망은 소통, 참여, 협력,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융복합 기반의 혁신 플랫폼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사회문제 분야의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치유센터, 기후변화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개발센터 등 정책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성찰과 회복의 과제를 제기하며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슈리포트 2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활동으로 바라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사회문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 왜 회복을 말하는가

김찬호 /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1. 고립 속에서 번식하는 감정들

재난은 불행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 사이에 의외의 유대가 생겨나게도 한다. 레베카 솔닛은 『이 폐허를 응시하라』라는 저서에서 그것을 가리켜 ‘재난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재난 속에서 이웃이나 전혀 알지 못하는 타자들을 향해 이타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절망적인 처지에서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도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IMF 금융위기 때 무너지는 기업을 살리겠다고 장롱 속의 금반지를 내놓은 것이나,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위를 닦았던 일 등 말이다.

그런데 팬데믹에서는 ‘재난 유토피아’가 경험되기 어렵다. 전염병의 창궐은 감염 공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접촉이 극도로 억제되고 타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예민해진다. 휴일을 반납하고 격무를 감수하는 보건당국 담당자들이나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낼 뿐, 일반 시민들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외출 및 만남의 자제와 철저한 ‘거리두기’만이 요청되는 가운데 사회적 유대는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난은 기존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문제를 첨예화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단절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혼밥이나 혼술 등의 문화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

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고립을 한결 심화했고, 이는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많은 이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다.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업종, 지역, 국가를 둘러싸고 격차가 더욱 벌어졌는데, 그 결과 우울과 자살이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20대 여성이 심각한데, 재난에 취약한 비정규직 서비스업종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가속화한 또 다른 변화는 디지털 전환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맹렬하게 진행되던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다. 배달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주문 키오스크에서 서빙 로봇 등이 많아졌다. 무인 매장의 증가 속에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소외되기 쉽다. 그리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 내지 업체와 아날로그 의존형 산업 사이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진다.

디지털 세계의 확장은 우리의 내밀한 세계에서 더욱 뚜렷하다. 오프라인 접촉이 규제되고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시간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에 SNS나 유튜브에 과몰입하는 경향이 농후했는데, 코로나가 그것을 더욱 촉진했다. 무료하고 고립된 일상에서 디지털의 흡입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무한한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고 언제 어디서든 수많은 사람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터넷상에서 드러나고 비교되는 자아상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도취와 열등감 사이를 오가면서 정체성이

흔미해지기 쉽다.

숨 가쁘게 쏟아지는 뉴스나 메시지들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보의 과부하는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무력감과 방향 감각 상실을 초래한다. 언론인 올리히 슈나벨은 이렇게 말한다. ‘디지털 매체는 부정적 감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기에, 네트워크 안에는 부정성의 파도가 일렁이기 쉽다. 부정적 감정은 더 빨리 일어나고 천천히 잦아든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데는 매우 빠르지만, 다시 평정을 되찾는 데는 오래 걸린다. 또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걸 다시 잃어버리는 것은 금방이다.’¹⁾

사회적 고립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라나기 쉬운 토양이 된다.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면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이 간절해지는데, 혐오와 적대감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간편한 통로가 된다. 무엇을 지향하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에 비해, 누군가를 함께 미워하고 모욕하는 것은 관계 형성에 매우 강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사회가 거칠고 공격적인 집단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 배경에는 무력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원자화된 군중 그리고 그 어두운 정서를 증폭시키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

2. 사회적 유대 - 인간 존엄의 토대

‘사람들이 그들의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그들이 이미 최선의 모습이 된 것처럼 대하라.’ - 괴테 -

코로나19의 후유증은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경제적인 타격 및 양극화와 함께 가장 많이 거

1) 올리히 슈나벨, 『확신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가』, 인플루엔셜, p.196, 2020

론되는 것이 학력 격차다. 온라인 수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지 않거나 가정환경이 열악한 아이들의 학습 동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실에서와 달리 교사들이 그런 격차를 인지하면서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없기에, 뒤쳐지는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된다. 저학년일수록 지적 능력의 정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적 능력에는 여러 측면이 있고 그것들 사이에는 유기적인 연관이 있다. 인간 지성에 관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 능력만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도 정규 교육을 통해 이수하는 교육적 성취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 비인지 능력이란 ‘시험점수’나 ‘IQ’등 수치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종합적인 역량을 가리킨다.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는 열정과 끈기,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는 리더십,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해 내는 회복 탄력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인지 능력 중심의 학력 편중주의를 벗어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비인지 능력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사회적 지능이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막히면서 많은 학생들의 학습이 정체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친구들과의 사귀를 갖지 못한 것이다. 어린 나이일수록 지성의 복합적이고 균형 있는 발달이 필요한데, 사회성을 익히지 못하게 되면 다른 지적 능력에도 지장이 생긴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지 못하면 불안한 정서에 휩싸이고, 그것은 지성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신의학자 베셀 반 데어 콜크는 이렇게 말한다. “정신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중략) 단지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만 하는 상황은 사회적 지지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상호의존’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와 나

의 말을 제대로 보고 듣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중략) 우정이나 사랑을 제공해 줄 처방전은 어떤 의사도 써 줄 수 없다.”²⁾ 방역을 위한 멈춤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립되고 분절된 마음을 추스르고 **사회를 복원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어디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다행히 **우리 안에는 타인과 공명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유전자**가 살아 있다. 에고의 비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존재가 확장될 수 있다. **사회적 감각은 인간이라는 종을 하나로 묶으면서 서로의 존엄을 일깨워준다.** 그러한 자각 속에서 파편화된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열어준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타진해가야 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뉴욕의 많은 증권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과 돈을 잃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전혀 다른 인생 2막에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한다.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노숙인을 돌보는 일에 뛰어들거나, 교사로 전직한 사람들이었다. 타인의 행복이나 성장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삶의 갑작스러운 파국과 기득권의 완전한 붕괴를 맞이했을 때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 치열한 머니게임에 매몰되어 망각하고 있던 자신의 존엄성을 새삼 알아차리고 타인들에게도 그 씨앗을 일깨우는 기쁨 아니었을까.

3.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희망은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치가 있으리란 확신이다. 그게 잘 되든 말든 상관없이. - 바츨라프 하벨 -

‘회복’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고, 맥락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양하게 상정될 수 있다. 그 단어가 들어간 개념 가운데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것으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있다.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이 된 <응보적 정의>와 달리, 연관된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최대한 치유되도록 함께 책임과 의무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회복 탄력성**은 어떤 시련이나 실패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전자가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는 자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려면, 그 두 가지 차원에서의 **회복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예술은 공동의 언어와 체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극복하는 길을 다양하게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서는 모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간부와 청소부가 함께 노래를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면 일상 업무 환경에서 거의 대면할 수 없었던 이들이 동등한 단원으로서 만나고 서로에게 친숙해진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들이 차츰 허물어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고위직 멤버는 말단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일반 직원들은 상급 관리자들이 어떤 압박과 책임감에 시달리는지를 새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예술은 또한 무너진 삶을 수습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주어진 사건이나 상황을 마치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걸음 물러서 멀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선, 내면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형상화함으로써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정서의 힘과 경험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화 과정을

2) 베셀 반 데어 콜크, 『몸은 기억한다 -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제효영 역, 을유문화사, pp.136-137, 2016



<그림 1> EBS 다큐프라임 예술의 쓸모 1부-‘춤, 바람입니다’ 편³⁾⁴⁾

통해 우리는 희망을 회복할 수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 롤로 메이는 우울증을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의 상실’이라고 정의했는데, 다른 존재와 더 나은 세계의 가능성을 탐색할 때 우리 사회를 넓고 깊게 잠식한 코로나 블루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예술은 그런 상상력의 원천이 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가보지 않은 세계’는 불안으로 채감되지만, **우리 안에 깃든 의외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무한 성장의 신화를 붙들고 속도 경쟁에 매몰되어 훼손하거나 망각했던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존엄을 세우려면, 개인의 독자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의존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다. 타인과 깊은 연결을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끼리 이어져야 하고, 정서적인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자기의 중심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신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과의 고독한 대면이 요구된다.

‘고독’이라는 단어에는 상이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 두 글자에 각각 ‘립’(立)자를 붙여보자. ‘고립’과 ‘독립’이 된다. 근대사회에 접어들어 등장한 개인은 <독립>을 통해 자유를 추구하고 자기만의 인생을 향유하려 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고립>에 이르고 만다. 내면의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기중심성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모처럼 주어진 ‘고독’의 시간이 ‘고립’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을 훈련할 수 있다면 타인과의 만남도 한결 충실해진다.** 자족의 넉넉함과 환대의 너그러움으로 상대방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잠시 멈춰 선 지금, 우리 안에서 고요함을 되찾고 더 나은 삶을 구상해 보자.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적 면역력은 거기에서 배양된다.**

3) 서울 지하철 환경미화원과 안무가 예효승이 함께한 무용 워크숍 프로젝트

4) [이미지출처] <https://blog.naver.com/artezine/222459580871>

II.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적 회복 : 현상진단과 미래방향

이병준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팬데믹, '문화예술교육 변화의 계기'가 되다

우리 사회에 팬데믹 현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전에 가졌던 상호교류와 소통의 공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요즈음이다. 그 흔한 카페조차도 이제는 매우 고마운 존재가 되었고, 사람 냄새나는 작은 모임들조차 그리운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문명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기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문화예술교육 분야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식에 고민과 함께 이제 변화의 물꼬들이 트이고 있다.

원래 교육이란 변화되고 있는 세계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그 사회적 상황'에 놓여진 인간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교육도 예외는 아니기에,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변화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재해석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은 일, 학습, 소비, 여가,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양식들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변화된 생활양식에 대한 선택은 우리 인간의 몫이지만 최근 마주하고 있는 현상 속에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 상황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주목해야 할 '진단'과 '회복'의 영역들이다.** 지금의 팬데믹 시대에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적 관계와 현상을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 방향성

설정을 논의해볼 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 등 관계의 회복에 대한 과제에 집중하겠지만 **이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는 '문화예술교육의 디지털화'라는 패러다임 전환문제이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온라인영역으로 급속도로 이행해가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현재적 시점에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2. 문화예술교육에 '디지털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는 언제나 매체라는 운반체를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에는 문화의 발전 속도가 이전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속도를 동반하고 있는데,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은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V. Flusser가 언급한 '기술적 형상 (technical picture)'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장에서는 '매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기술적 형상'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의 융합체로서 이미지, 문

5) Flusser, V., 『코뮤니콜로지』. 김성재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자텍스트, 그리고 컴퓨터기술이 결합된 방식이다.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주도 매체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매체의 실험과 적용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전달방식으로 디지털 매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매체 격차'가 우려된다. 때문에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역량 강화가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에 최우선순위에 놓여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것은 아날로그를 폐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디지털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개발과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기초와 흐름은 향후 국가차원의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의 방향에서도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적 시도, 그리고 디지털 소외 계층 및 집단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설계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물론 디지털 매체 속의 다양하고도 실험적인 운영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매체 민주주의'의 기초도 유지해야 한다. **'매체 격차', '디지털 매체 격차'는 자연스럽게 세대 문제⁶⁾와 관련된다.**

한국 사회에는 현재 세대 통합이라는 큰 사회적 아젠다가 놓여져 있다. 현재 사회와 조직 속에서 상존하고 있는 세대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생애 전 주기, 전 세대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세대 상호 간의 학습이 촉진될 수 있는 매체 기반의 세대 소통 프로젝트들이 정책적으로 기획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세대공존'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의 핵심이라고 볼 때, 그 세대공존은 '매체적 공존'이어야 한다. **'세대 간 매체적 공**

6) Mannheim, K., 『세대문제』, 이남석 역, 책세상 2013

7) Assmann, A.,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변학수 채연숙 역, 그린비, 2011.

존'이란 각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도 매체 이외의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관심과 활용역량을 길러줄 때 가능한 것이다. 다른 매체를 사용할 수 없어 익숙한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가 지금 여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될 때 매체에 기반한 세대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이렇듯 세대가 활용하고 있는 매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한다. 각 세대의 문화적 기억의 저장매체들은 상이할 수 있고⁷⁾이는 그 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제영역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공동의 아젠더들을 함께 연구해갈 때 각 세대는 존중받을 수 있고 세대 간 경험과 지식의 결합으로 이전 세대 경험의 사장이라는 사회적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문화예술교육이 기여할 과제를 정책적으로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세대와 매체의 다양성에 기반한 융합적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기획되고 지원되며 확산될 수 있도록 세대 간 학습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생태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생태적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적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함께 -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생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생태문화예술교육의 사례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장에서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이라는 '생태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의 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웃도어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체험학습’의 새로운 재구성적 디자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등장이 기획자들과 학습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자연을 기반으로 한, 체험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소규모집단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마치 4명의 구성원들이 골프팀을 이루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는 것과도 흡사하다. 팬데믹을 피해 안전하면서도 그간 잊고 있었던 ‘자연을 통한 미적 감수성 함양’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청량제가 되고 있다. 그간 문화와 예술을 통한 미적교육에 치중해있던 문화예술교육이 이제야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하다. 생태문화예술교육은 이제 담론의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검토대상으로, 그리고 실천의 새로운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장에 스며들고 있다. 특히 **생태문화예술교육은 지구적 환경위기⁸⁾⁹⁾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무성의 강화라는 변화의 물꼬를 틀고 있다.**

4. 문화예술교육의 장에 ‘소규모 학습공동체’의 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부족의 시대』라는 책을 펴낸 프랑스 사회학자 M. Maffesoli는 작은 규모의 다양성을 지닌 사회적 집단의 등장을 독일 사회학자인 G. Simmel의 이론에 기반하여 새롭게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¹⁰⁾ 팬데믹 현상은 유사한 정서와 의례를 지닌 아주 작은 규모의 ‘사람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이전세대의 공동체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적은 보다 슬림하면서도 훨씬 더 정서적으로 가까운,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학습의 스타일적 변화’를 추동하는 현상으로 문화예술교육방법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대

규모 강화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교육과 학습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소규모 학습공동체, 실천공동체의 진정한 활성화라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토론기반의, 집중적이고 밀도있는 의사소통기반의 학습**이 이루어질 기회가 제공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 문화예술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주체적인 학습자로 이끄는 계몽적(해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수동적 자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통한 자신과 사회의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규모 문화예술교육 학습공동체는 학습자들의 다양한 취향 발산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우리 사회가 밑으로부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리좀’¹¹⁾과도 같아 우리 사회의 혁신을 추동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은 다양한 미적, 예술적, 문화적 취향을 지닌 소규모 학습공동체 지원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도 학습공동체 간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킹 활동의 지원을 새롭게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야 할 지점에 다다랐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획과 실행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8) Beck, U,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위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17.
 9) Giddens, A, 『기후변화의 정치학』, 홍욱희 역, 에코리브르, 2009
 10) Maffesoli, m, 『부족의 시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쇠퇴』, 박정호 신지은 역, 문학동네, 2017
 11) 유재언, 『차이의 경영으로의 초대』, 삼성경제연구소, 2004

5. 균형을 지향하며

필자의 생각에는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에서 ‘균형(balance)’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자연과 문화 간의 균형, 디지털과 아날로그간의 균형, 큰 교육공동체와 작은 학습공동체간의 균형, 기성세대와 신진세대 간의 균형 등등. 이러한 과제 속에서 과연 **‘균형감’과 ‘유연성’을 길러주는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문화 역량은 창의성만을 길러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창의성이란 개인으로 국한되어 이해되고 예술의 영역으로만 제한하여 해석되고 있는 경향이 다분하다. **창의성이 공동체와 사회, 세대 전 영역과 맞닿을 때 균형과 유연성이라는 문화 역량과 연결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 역량의 개별요소들은 요소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실천 속에서는 하나의 연결된 망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연결성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새로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III. 문화예술교육이 ‘회복’에 다가가는 방법

박은선 / 명지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

무라카미 하루키의 『해변의 카프카』(2002)에는 한 아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어머니를 용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용서와 화해의 순간은 환상의 공간인 숲에서 일어났고 아이는 이제 숲을 벗어나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러 돌아온다. 이 숲은 혹독한 현실을 피해 찾아가던 은신처이면서 동시에 현실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는 회복의 공간인 것이다.

소외의 문제, 삶의 의미 축의 약화, 팬데믹이 불러온 단절과 불안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실천을 논하는 서두로 이 상징은 다소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술치료사로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목도하는 나에게 회복의 장은 이런 숲의 모습이다. 정신없이 흘러가는 일상에서 한걸음 비껴 나와 지금까지의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알게 된 자신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치유라고 할 때 그것은 실험이 가능한 반 현실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그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지만 이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 관계로 구성되는 사회로 확장되기도 하고 방향을 틀어 개인 내 분절된 자기로 이어진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에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치유나 회복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치유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단체에서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그간의 문화와 예술의 정의, 가치, 사회적 역할에서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5년부터 ‘문화예술치유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등의 사업을 통

해 예술치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¹²⁾ 여기에는 기존 예술가, 예술가 교사 만이 아니라 예술치료사들이 강사로 투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수행을 지도 감독하는 슈퍼바이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학교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의 대상도 일반 시민, 더 나아가 전문예술가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지식과 기능, 창의성이나 역량 강화에서 개인의 돌봄과 회복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¹³⁾ 이런 사업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물은 예술강사, 참여자, 평가자 모두 예술이 개인의 회복에 기여하였다는 데 동의하며,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경험을 통한 개인의 질적 변화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⁴⁾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교육, 예술치유, 그리고 예술치료 간의 경계와 정체성의 모호함, 적용상의 혼란이 이 흐름 안에서 관찰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실천은 실험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치유적 성격의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혹은 참여자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 많은 강사 혹은 운영자들이 심리검사를 떠올린다는 점이 그 혼란을

12) 서울, 예술, 치유(2020). 예술강사들이 투입되는 ‘예술치유’는 참여자들의 예술행위를 이끈다는 점에서 교육의 구조를 갖지만 기존 교육과 다른 ‘치유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13) 김수정, 최섯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왜 혼란스러운가?: 문화예술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사회학적 시론”, 문화와 사회, vol.24, pp.7-54, 2017
14) 일례로 2013년부터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수행한 일련의 연구 및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다. (예술치유 모델과 평가체계 사례연구(2014), 예술치유총서: 예술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가(2017),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2019))

보여준다. 프로그램 내 예술작업이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경험, 즉 문화예술교육의 지향점이 이런 검사로 측정될 수 있는 심리적 변인과 연결감이 적어서 검사로 측정된 참여자들의 변화가 제공된 교육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치유적 예술작업 개념에 대한 혼란은 현장에서 일하는 예술강사들의 역할 갈등이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치유적 예술작업에서 대한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회복 경험은 여전히 보고되고 있다.

‘회복’, ‘치유’, ‘힐링’은 때로는 건강, 때로는 안티 에이징 시장과 맞물려 산업적으로도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문화예술은 어느샌가 정의, 소통, 평등 등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치를 흡수하여 모든 것에 적용되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팽창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제공받는 사람 모두에게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게 되었다.¹⁵⁾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회복’이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안성맞춤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마치 큰 우산 아래에는 어디서든 비를 피하듯이 문화예술이라는 큰 우산 속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도 회복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강사나 참여자 모두에게 정교함이나 초점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는 것은 아닐지 그러면 이런 태도는 오히려 회복이 요구되는 상처

15) 김수정, 최섯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왜 혼란스러운가?: 문화예술교육정책 연구를 위한 사회학적 시론”, 문화와 사회, vol.24, pp.7-54, 2017
16) Block, J., & Kremen, “A. M., IQ and ego 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2), pp.349-361, 1996
17) 기경희, 김광수,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과 과제: 회복탄력성 개념과 척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vol. 17(2), pp.157-175, 2018

나 트라우마를 너무 일반화하거나 조금은 단순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본다. 무거운 것만이 상처이고, 회복 역시 그만큼 무거워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경험, 그리고 공감의 시대에서 회복을 위한 토대는 적어도 모든 경험의 회귀로 인한 일반화의 세계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이고 일회적이기 보다 좀 더 단단한 토대이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대어 우울이나 무기력에서의 회복, 단절을 메꾸는 소통, 고유한 가치의 정립과 추구를 위해 어떤 준비와 태도가 필요할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이미 동의했다고 믿고 있었던 지점으로 돌아가 회복과 치유의 정의 혹은 정체성을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는 회복을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는 하나 자아탄력성은 주로 개인의 성격적 특질로서의 강인함이나 융통성, 적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인관계, 호기심과 활력성, 행동 및 감정통제 등의 요인으로 설명된다.¹⁶⁾ 회복탄력성은 좀 더 역동적인 개념으로 역경이나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¹⁷⁾ 그러므로 회복을 초점으로 하는 한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요인들을 경험하고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리가 심리학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좀 더 폭넓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철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는 어떻게 회복을 정의하고 어떠한 과정이 개인의 회복을 돕는다고 설명하는지 들여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의학적 접근 패러다임이 이미 ‘cure’에서 ‘care’로, 즉 해결 중심에서 동반과 돌봄으로 이동하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덮는 큰 우산으로서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명백한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원리와 요소들이 예술 행위를 통해 실현되도록 프로그램과 강사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고 과연 실제로 실현되

는지 점검해야 한다. 개념, 요인, 접근 원리는 이론에서부터 도출되는 하향식 경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현장 경험으로부터 상향식 경로로 수렴될 수도 있으니 이를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내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술작업 레퍼토리는 많으나 다양한 셋팅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고민하는 많은 예술강사들에게 이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평가를 위한 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평가 준거가 자기보고식 심리검사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므로 기존의 만족도, 인식 조사에 좀 더 정교한 방식의 준거를 더하고 질적 평가가 동반된다면 문화예술교육의 성격에 더 적합한 평가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술강사, 예술가교사의 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가뜰이나 강사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틀을 회복과 치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회복과 치유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강하다 보니 낯선 개념으로 여겨지지 않아 그 정의나 접근이 매우 표면적이거나 거칠고 때로 왜곡되어 있어도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여기에 예술가, 예술강사로서 정체성이 더해질 때 치유적 예술의 혼란이 개인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술강사가 자신의 예술과 자신이 인도하는 교육참여자들의 예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그들의 예술을 자기 예술의 도구 혹은 연장선으로 규정하면서 대상화하는 것도 이러한 혼란을 반영한다. 정체성 혹은 직업적 경계와 무관하지 않게, 치유적 예술교육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민감도, 반응성도 그간의 훈련이나 경험에서 습득된 태도와는 달라야 한다. 상처는 그 개인에게조차 감춰져 있거나 모습을 바꾸고 있을 수 있다. 마음의 움직임은 미세하고 모순적이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

은 ‘극복’과 ‘파이팅’의 주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인이 실천의 단위일 때조차 이러한 반응성과 민감성은 당연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찰, 이와 연결된 인간 삶에 대한 고찰로부터 온다. **치유와 치료의 패러다임, 회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공감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며 역량 강화는 이제 노하우 전수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치유의 현장에 투입되는 상담가, 심리치료사, 예술치료사들에게 강하게 요구되는 덕목과 훈련의 핵심은 개인의 성숙이다. 회복의 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개인의 회복 경험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개인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지경을 넓혀 좀 더 보편적인 원리를 깨닫는 변혁적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소진과 무기력, 좌절의 형식으로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 또 서서히 반응되고 있다. 2021년 아르떼 아카데미 학교 예술강사 연수에서도 예술강사의 자기 돌봄이 정체성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예술강사 스스로 회복의 경험에 노출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¹⁸⁾

이들은 다소 원론적인 제안이므로 적용에는 경우의 수가 많을 것이다. 그 적용에는 **다양한 방식의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생태계’, ‘공존’이 ‘협오’, ‘단절’과 같이 다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영역을 왜곡하여 나의 정체성의 세우거나 소유권을 강조하려고 했던 혐오와 단절의 태도는 없었는지 점검하고 광범위한 모호함을 기꺼이 받아들여 혼란과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도 예술강사들의 협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비해 참여경험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연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애로사항

18) 예를 들어 Northern Ireland의 Corrymeela center에서는 회복과 돌봄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다.

이나 제안-를 참고하여 협업을 위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리고 이런 연구와 점검, 훈련과 협업의 과정이 예술강사 개인 단위로, 혹은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지속적으로 초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교육과 실천을 담당할 조직이나 단체 등이 제안되어야 한다.**

어린 헨젤과 그레텔은 내쫓기듯 숲으로 들어가지만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갈 때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마치 신화 속 영웅의 귀환처럼 마녀를 물리친 극복의 경험과 지혜를, 금은보화를 가지고 돌아간다.²⁰⁾ 고요한 듯 보이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 숲에서 아이들은 역경을 딛고 자신을 찾는다. 그래서 회복은 힘이고 성장이다.

19) 이화정, 임학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문화예술교육 협업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vol. 47, pp.93-119, 2018

20) 브루노 베텔하임, 『옛 이야기의 매력』, 김옥순, 주옥 공역, 시공주니어, 1998

IV.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연결’과 ‘회복’

이초영 / 별일사무소 대표

2020년 6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감소와 접촉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비대면 시대 문화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가문화·사회활동의 감소에 따른 고립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한 문화 격차의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연결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3대 추진전략 및 6대 과제를 제시했다.

해당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자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문화격차가 심화되어 문화활동 소외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고령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감을 증가시켰고 코로나 2차 유행, 경기 침체, 소득·지역·세대·국적·인종 간 갈등은 물론 가족과 이웃 간의 일상 갈등 증폭이 심해지

는 추세로 삶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략 1.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 문화 조성’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의 제작,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디지털 문화격차의 해결을 위한 문화시설과 유희공간의 활용을 제시했고, ‘전략 2.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활성화’는 문화를 통한 개인 간 연결에 주목하여 돌봄과 치유, 삶의 관계망 회복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전략 3. 사람과 사회의 연결 기반 강화’는 문화도시·유희공간 문화시설화 등 공간재생의 지원, 지하철역·도심광장·학교도서관 등 접근성이 좋은 지역 공간을 문화적으로 바꿔 지역사회에 다양한 연결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플랫폼 공간 조성(하

비전	문화로 연결되는 따뜻한 사회
목표	<p>* 문화예술 관람격차 축소: 연령격차 47.5%(’19년)→35.4%(’22년) / 소득격차 40.8%(’19년)→32.1%(’22년) / 지역격차 12.7%(’19년)→10.1%(’22년)</p> <p>* 사회적 외로움 완화: 20.5%(’19년)→17.4%(’22년)</p>
전략	핵심과제
① 사람 중심의 디지털 연결 문화 조성	① 디지털을 통한 인문·문화 가치 확산 ② 사람 중심의 디지털 환경 구축
②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활성화	① 돌봄과 치유의 문화안전망 마련 ② 문화를 통한 삶의 관계망 회복
③ 사람과 사회의 연결 기반 강화	① 다양한 사회적 연결 공간 마련 ② 건강한 연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확산

<표 1> 따뜻한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대면 시대의 문화전²¹⁾

21) 문화체육관광부, “연결사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98, (2021.12.13)

드웨어), 체험·향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지원(소프트웨어), 인력의 교육과 양성(휴먼웨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특이점을 하나 꼽으려면 ‘전략 2.’에서 고립·소외된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문화돌봄사’²²⁾²³⁾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정도이다. 고립과 소외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단위가 정책에 등장했다는 점, 매개 인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고립과 소외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암묵적 인정으로 보인다.

3대 추진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다. 연결은 그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든,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든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중요 가치라고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했다.²⁴⁾

22) 문화돌봄사의 개념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에서 기인한다.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은 2018년 영국 정부에서 고독전략(Loneliness strategy)을 공식 발표하면서 ‘고독 해결’이라는 의제 하에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울증, 경·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 예술을 처방하는 것을 뜻한다.

23) “‘사회적 처방’의 핵심 작동방식은 바로 ‘위탁적 절차(referral process)’에 있다(Bungay and Clift 2010, 277). 의사가 특정 활동을 직접 지목하기보다는, 지역자원을 잘 알고 있는 ‘매개인력’에게 환자를 위탁하고 이들 매개인력은 상담을 통해 환자가 특정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안,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결자(link-worker), 브로커(broker), 커뮤니티 네비게이터(community navigator)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매개인력은 전문예술가이기보다는 제3섹터 등에서 오래 활동하여 지역 내 예술프로그램이나 자선활동 정보에 익숙한 시민활동가들이 대부분이다(APPG 2017, 39; NHS England 2018).“ (최보연(2019). 고독해결을 위한 ‘예술기반 사회적 처방’ 정책 확산과 문화정책적 함의: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6(1), 233-268.)

24) 네이버 블로그 더 나은 미래, “코로나시대 연결”, <https://blog.naver.com/future4all/222196866091>, (2021. 11. 18.)

25) NPC(New Philanthropy Capital), “협력과 연대”, <https://www.thinknpc.org/resource-hub/coronavirus-guide/#c>, (2021. 11. 18.)

자연은 생존을 위해 서로 손잡아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생태학),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시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연결되어야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점(과학철학), 사람다운 시를 만드는 학습데이터는 사회연결망에서 나온다는 점(전산학), 연결과 집합을 통해 범죄 피해와 해결에 개입한다는 점(범죄학), 연결 대상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심리학), 국토의 불균형은 지방의 잉여와 수도권의 결핍을 연결하여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도시공학)을 들어, 연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연결은 누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할까.

영국의 비영리단체 중간지원조직인 NPC(New Philanthropy Capital)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취약해진 영역에 대해서 정리한 예시이다.²⁵⁾

1. Elderly care(노인돌봄)
2. Financial security(비정규직/자영업자 등의 재정기반)
3. Young people (청소년)
4. Education(교육)
5. Mental health(정신건강)
6. Disability(장애인)
7. Prison & rehabilitation(교도소와 갱생)
8. Sexual & domestic violence(성 & 가정 폭력)
9. Housing & homelessness(주택 및 노숙자)
10. Children in care(아동 돌봄)
11. Discrimination(차별)
12. Refugees(난민)
13. Arts & culture(예술과 문화)
14. Healthcare & research(의료 및 연구)
15. International development(국제 개발)
16. Parenting & maternity(육아 및 모성 보호)
17. Environment(환경)

예시의 항목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나라도 경험했듯 특히 돌봄, 교육, 환경, 안전 등 사회복지 영역의 약한 고리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간 사회복지의 가장 개인의 삶과 밀착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속하는 사회문제의 대응을 위해 개인과 공공의 연결에 더욱 집중했다. 복지 서비스의 촘촘한 체계와 인프라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개인의 욕구와 더불어 복지 대상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개인의 삶을 중심

으로 한 관계 맺기의 의미와 연결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오늘날,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삶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결과 회복의 중요성이 공감받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제일 고려할 핵심 내용은 ‘삶’이다. 개인별 삶을 중심으로 사회 속 단절·고립·배제되는 상황을 돌아보는 성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찰을 통해 고립의 원인을 개인의 사정, 문제, 성향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지역과 지역의 연결과 회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한다면 다양한 실천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듯 사람과 현장의 성찰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출발은 문화예술교육의 실천과 맞닿아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신체적·실천적 대화를 통해 대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유의 계기를 마련하여 관점과 태도의 변화를 이끄는 데 유효하다. 개인에 집중한다는 점, 상호 작용에 따른 관계 형성, 그에 따른 변화에 주목한다는 점이 연결과 회복의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다.

연결과 회복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서 실험할 수 있는 방식 중 첫째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다양한 공간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실험할 수 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공간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경험한 세대로서 ‘삶’에 필요한 여러 공간의 의미를 모색하여 다양한 쓰임에 대해 정의 내리며, 배움, 돌봄, 교육, 안전, 생활을 위한 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영국의 상상력 연구소²⁶⁾의 톰 도스트(Tom Doust)는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창조적 문화예술교육공간을 위한 오픈토크」의 기조연설 ‘미래사회를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의 시선’에서 ‘상상력 랩’을 소개하며 아래와 같이 미래의 학습환경을 위한 전용 공간의 철학과 방식을 강조했다.

- 결과를 미리 정해 놓지 않고, 참여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
- 참여자들이 다양한 자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해 실험할 수 있는 장소 제공. 그리고 물리적 제작과 디지털 제작이 모두 환영받는 곳.
- 아이들이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한 놀이와 창작을 통해 배우도록 했던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와 같은 교육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장소.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재의 활용을 장려하는 곳.
- 참가자들이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곳. 참가자들의 활동 참여, 아이디어와 작업물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됨을 느낄 수 있는 곳.
- 다양한 학습자와 프로그램의 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가구들의 배치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유동적인 환경.
-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상상력 랩’에서는 학교, 교사, 대중, 문화관련 기관,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하여 혁신 기술부터 교육 방식까지 사회 변화를 투영하는 다양한 사례를 만든다. ‘로봇 동물원’은 로보틱스 부품 키트(Kit)와 공예를 활용해서 특정 동물 디자인으로 로봇 공학을 배울 수 있으며, ‘리코드 런던(RE:CODE London) 이벤트는 레고(Lego)와 합작한 레고 세트로 ‘대기오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주제로 참가자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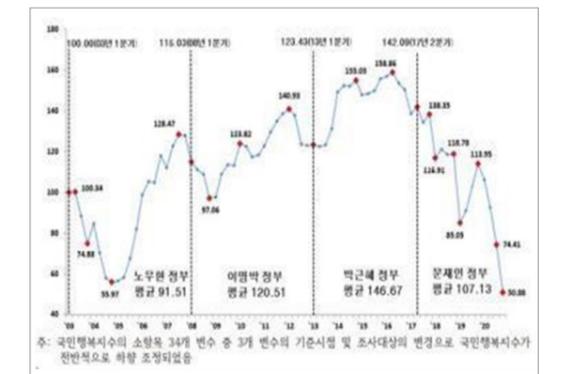
26) 2011년에 설립된 ‘상상력 연구소(Institute of Imagination)’는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구현하는 공간, 미래 메이커를 육성하는 교육공간을 구현하고자 실험실, 스튜디오, 갤러리, 과학센터, 박물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체험과 상상을 한 공간에서 실현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간으로 런던에 세계 수준의 문화공간인 ‘상상력 연구소 캠퍼스(Institute of Imagination Campus)’를 조성하여 핵심 미래 기술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학습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며, 상상력의 근원을 연구한다. (톰 도스트,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대에 문화예술교육 방향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과학기술과 예술 그리고 창조적 문화예술교육공간을 위한 오픈토크, 2018, p.14.」)



<그림 2> 칵테일 인 케어 홈즈 © Roxene Anderson for Magic Me²⁷⁾

둘째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부터 문화예술교육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활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은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쓸모를 만든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만난다는 의미를 경험하는 과정은 삶의 주체를 환기하는 계기, 주변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영국의 세대 간 교류 사업을 이끄는 매직 미(Magic Me)는 8세부터 100세까지의 다양한 세대를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개인의 자신감과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목표로 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협업으로 진행한다. 노인들에게는 창의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 문학, 미술, 미디어의 예술가들은 학교, 지역사회, 문화시설, 요양 시설은 물론 일반 가정, 사업장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²⁸⁾



<그림 3> 국민행복지수²⁹⁾

27) [이미지 출처] https://arte365.kr/wp-content/uploads/2021/04/dong_20210426_03.jpg

28) 아르테 365, “Magic Me”, <https://arte365.kr/?p=67998>, (2021.12.02.)

29) [이미지 출처]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happy&wr_id=39

셋째는 공공성의 의미를 개인의 행복 추구로 재정 의해야 한다. 생활 수준의 편차는 문화생활의 격차로 이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행된 사회 참여적 예술을 바라보는 대중의 함의는 현재도 부족하다. 문화공급과 문화수용의 측면으로 접근했던 한 계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에 더욱 천착하여 공공성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적 요구가 개인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다. 2021년 3월,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³⁰⁾(2003.1분기=100.0)는 50.88로 전 분기 대비 23.53 포인트나 하락했다. 2003년 지수 작성 아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4분기(113.9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³¹⁾ 사회의 질, 경쟁, 행복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이재열, 2015)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회의 질을 분석, 비교한 결과 한국에서 경쟁의 양상은 ‘과감한 창의성 경쟁’ 대신 ‘소극적 위험 회피 경쟁’을,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실력 경쟁’ 대신 ‘과도한 간판 따기 경쟁’을, ‘조화로운 공생 발전’ 대신 ‘약육강식의 승자 독식’ 경쟁한다는 점을 행복감 하락의 이유라고 보았다.³²⁾ 이미 코로나19 사태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위험이 처했던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공생을 상상해야 한다. 개인이 앞으로 변화될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해 지는데 매우 다양한 창의성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현을 상상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감각을 사회 전반에 확장하며 사회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고립, 고령화, 인구절벽, 도시 소멸 등을 주제로 삼아 교육과 복지의 서비스 대상으로 전략한 상황이 아닐까 경계하고 되물어야 한다. 다양한 사정으로 문화 활동이 어려운 개인을 위해 문화접근권을 높이고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일상 속 연결점을 만들기 위한 주제, 방식, 내용에 대해

서는 공동체와 사회통합의 주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프랑스에서 70만 개에 달하는 노인 주거 복지시설과 의료 시설의 출입이 금지되자, 노인들은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고립되었다. 12월 르몽드 기사에 따르면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이 44%를 차지했고 2021년 1월 코로나 확진자의 93%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8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절반이 코로나로 사망했고 75세 이상의 사망률은 약 8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서 인구 6만 명인 몽토방(Montauban) 마을의 위문편지 교환이 시작되었다. 자영업자인 파스칼의 제안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누구든지 지역 노인들에게 편지와 그림을 그려서 시내의 대형 쇼핑몰 앞 편지통에 넣으면 직접 마을의 노인시설에 전달했다. 한 달 후, 이 마을 대부분 학교가 위문편지 캠페인에 동참했고 노인들은 고마움에 답장을 썼다. 편지 뿐 아니라 화상 통화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문편지 캠페인도 있다. '하나의 편지, 하나의 미소'는 마르세유(Marseille)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시작했다. 창립자 브랑슈 듀롱(Blanche Duron)의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죽을 수 있다'는 노인시설 근무자인 삼촌의 말을 듣고 작년 3월에 캠페인을 시작했다. 48시간 안에 첫 번째 사이트를 오픈하여 프랑스는 물론 세계 곳곳의 노인 시설이 등록된 1,300여곳에 해당 언어로 작성된 편지가 전달된다. 93만

30) 국가미래연구원이 개발한 지수로서, 1인당 소비지출과 정부·가계부채, 고용, 환경, 물가, 소득분배 등 34개의 주요 항목 값을 분석해 측정하여 2003년 1분기를 기준(100)으로 매 분기 발표한다.

31) 손해용, 각종 체감 경제지표 악화일로... '국민행복지수'는 역대 최저, 중앙일보, (2021. 3. 21.), 경제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6528#home>

32) 이재열,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vol.4 no.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pp.3-7.

통(2021년 12월 3일 기준)의 편지가 전달된 국가별 기관 목록을 사이트(<https://1lettre1sourir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³³⁾ 이렇듯 개인이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 연대하는 경험은 문화예술교육의 속성인 연결의 미학과 매우 닮았다.

2020년 말, ‘2021년,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한다’, ‘문화가 개인의 삶을 돌보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안전망이 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가 있었고 2021년 7월에는 코로나19의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에 2차 추경 예산 2,918억원이 확정, 편성되었다. 이 예산은 문화 여가의 소비적 확대 측면에서 경제 회복을 제일 염두에 둔 실행안이다. 심리적 치유와 관련된 정책사업으로는 2021년 8월, 청년 1만 5천명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리하자면 향후 발표되는 문화정책 역시 일상의 회복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개인의 회복은 예술생태계와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시대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하는 예술계와 교육계의 활약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이 한층 더 요구받는 시대가 오고 있다.

33) EBS 뉴스, “사회적 회복”,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20496751/N>, (2021. 11. 18.)

문화예술교육 이슈분석 제2호(2021-1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사회 회복”
-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회적 가치의 탐색 -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21. 12. 17.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식정보 R&D센터

홈페이지 www.arte.or.kr
문의 02-6209-5945

등록번호 : KACES-2140-R01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면 비상업적·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도 금지됩니다.

